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으로 통신돼야 묵은 빛도 갠아

뜻으로 주인공 관해도 됩니까

문 오래전부터 궁금한 사항인데 저는 "주인공"하고 관할 때 글자로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며 관해왔습니다.

마음공부는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인공에
놓고 맡겨야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 마음속 깊이, 간절히 일체의 근본인 주인공을 부르기 보다는 지의 경우는 고정되지 않은 당시 또는 주인공, 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또는 원리 하는 식으로 다소 편한 마음으로, 어쩌면 머리로서, 깊이가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주인공의 뜻을 생각하며 관해왔습니다.

이런 질문자체가 나누기 좋아하는 저의 분별심인지, 공부를 잘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받고 싶고,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길로 채찍하여 주십시오.

답 주인공을 자기의 근본이라 해도 좋고 참자기라 해도 좋고 진여라 불려도 좋습니다.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떨습니까?

"주인공"도 이름이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라는 데 될 하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밥 먹고 똥누고 잠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누가 있어서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가 할 때에 선뜻 대답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한다 해도 느끼고는 계시겠지요.

그러나 말인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기까지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몽땅 놓고 맡기려는 것입니다.

놓고 맡기리니까 어디 따로 놓을 데가 있고 맡길 데가 있어서 그러느냐고 합니

다. 그러면서 놓고 맡기려는 건 잘못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더군요.

그런데 이 공부란 한마디로 말해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먼저 나부터 죽 빠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죽 빠져야 내가 빌 공(空)자 주인공에 놓고 맡겨야 내가 빠져도 빠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건성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해서 익어가는 게 아니며 그야말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작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도나 걱정입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엄마따라 선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별일없이 잘 지내왔는데 아빠사업이 부도나고 아빠의 내연 관계가 너무 많고 얼마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다못해 이렇게 스님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쭙습니다. 아빠는 회사도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과 의류제조업을 하는 공장인데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데 집도 쉽게 팔리지 않고, 집 담보로 은행 융자가 너무 많아 이자내기가 너무 힘이 드셔서 집을 팔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이십니다.

스님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한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 어린 마음이 무척 가혹하군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늙고 젊고 따로 없어서 어린 나이를 먹었든 다 같은 마음입니다. 참 자기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몸집이 가 어리다고 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여길 다니고 있다가 열심히 주인공을 믿고 놓고 관하도록 하세요. 일이 잘되고 안되는 것까지도 다 놓고 맡기세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인공이 우리 가족을 공부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면서, 되는 것도 주인공 당신만이! 안되는 것도 주인공 당신의 료이니 알아서 하시오! 하고 놓으세요.



그림 · 최주현

이 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공부 흔들리지 않으면 법계가 다 호응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법계가 다 호응을 할 겁니다.

경전 해석 달라 파벌 우려

문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그간 아내의 권유로 6개월여 일 요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두 자녀도 어린이 법회에 동참시키고 있고 현재 조계종 포교사로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고 자성분래불을 찾기위해 노력하며 현재 스님의 법문이나 모든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참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마음선원의 모든 경전에 한마음선원의 독자적 해석을 하여 놓으셨는데 지금 조계종에는 (통일 불교성

전)이나 기타 <한글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석해 놓는 것은 다른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 또는 한마음선원에서 다른 사찰에 갔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의식을 할 때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같은 불법에 같은 경전을 보면 서도 파벌 등이 생기는데 하물며 전혀 생소한 해석의 경전만 접하다보면 자칫 또다른 파벌형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전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으로 사용하면서 교육 등으로 스님의 사상을 퍼는 것이 오히려 불교 대중화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절 어느 선원에 가든지 어떤 불자와 함께 법회를 하더라도 서로간에 일

반화되고 서로 같은 의식절차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같은 종교 같은 종단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의 하나인 <반야심경>이든 같이 염송할 수 없다면 이는 좀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답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불교의 '불'은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하면 바로 우리가 살며 생활하는 도리를 이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여는 종교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그대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말로 가르치려니까 그 시대에 맞는 말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처님 계시실 당시엔 그때 그 사회에 맞는 말로 가르쳤고 그 이후 중국에 전

해져서는 또 그들 말인 한자로 가르쳤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지만 그보다는 물질이 극치적으로 발달해서 정신세계는 뒷전이고 매사 물질만 치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만 정신을 다 빼앗기고도 빼앗기는 줄조차 모르고 살게끔 그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엔 거기에 맞는 말로 가르쳐야 옛날 그식 그대로 가르치던 대로 제대로 알아 먹거나 하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가르치는 방편이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요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세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무명 옷 입고 마차 타고 또는 걸어서 다니던 시대의 말로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본이 다르지 않다면 겉대야 대수인가요. 진리는 진리이니 그대로 진리입니다.

선원서 천도재 지내고 싶어요

문 대행스님, 저는 항상 조상님들께 지내는 천도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천도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의식이 듭니다.

춘천에서 살고 있고 한마음선원 본원에는 일년에 몇번 가질 않고 최근에는 그나마 가질 못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장에는 부지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만둘 뉘는 것일수도 있구요. 가까운 절에서 천도재를 지낼까 생각도 했지만 한마음선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주십시오.

답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든 어떻게 어느 스님이면 어떻게 의식이 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정성이지요. 내 지극한 마음 기울여서 조상님을 생각하고 진실로 천도되기를 바란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조상님들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이왕지사 갖출 것 갖출 수 있으면 좋겠고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께 부탁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형편이 따르지 못하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통할 겁니다. 마음으로 말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점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205

수박 씨를 밖에서 찾으려면 백년이 가도...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해 놓고, 마치 꼭두각시 놀음을 구경하듯 구경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켜 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이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오드는 주체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지켜보라. 생각하기 이전의 그 주체가 대공의 주체이다.

지켜 보라. 자기 발견을 지켜 보라. 말하는 건 누가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 보라. 자기 하나 있어 이념까지 모든 것을 해오고 있는 것을 지켜 보라.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면 끝내 찾지 못한다. 울고 웃고 피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 그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가. 자세하고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했느냐? 온 것은 누구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구멍이에 빠졌고 누가 나오려고 하느냐? 누가 울고 누가 웃느냐? 그

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이고 그것을 지켜 보는 근본은 누구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직 '누가 하느냐'를 탐구하고 들어갈 때 공한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주인공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다. 주인공 하나를 쥐고 일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비로소 활연히 참 나가 드러난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면 나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 보라.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지금 왜 미혹한가, 나는 어찌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지하게 살피면서 중생으로서의 자기를 영원한 자기, 무아인 주인공에 던져 버려야 한다.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면목이 있는 줄은 아는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담하라.' 하는 것이 곧 관이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 수 있다. 이때 진짜로 관해야 한다.

마음을 약하게 쓰면 악업이 돌아오고



선하게 쓰면 선업이 쌓인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지켜 보라. 지켜 보고 나가다 보면 좋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 왔고 나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 왔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알게 된다. 누가 하는지를 알 때 자유인으로서의 극락은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조건을 한번 돌아보는 게기가 있어야 하고, 한번 돌아다 봤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맡겨야 한다. 맡겼으면 내가 거서서 일체 만민이, 내가 나왔기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팔고 다니고, 나는 내가 있기에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아누다라 삼막삼보리에 이르러까지, 무의 세계·유의 세계를 합쳐 중용하는 것까지, 구경각지에 이르는 것까지 열반세계에 이르는 도리까지 다 배워 서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누가 하는 것인가 확연히 꿰뚫어야 한다.

무슨 차원이 어떻든가, 오케이, 심신이니, 육바라밀이니, 12인연법이니 그런 것을 공부의 기초 자료라 해서 읽어 가지

고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문자에 치우치기 쉽다. 이 공부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공한 마음의 자리에 있다. 즉, 우리가 억만만겁을 돌아온 것이나 앞으로 갈 것이나 현재나 전부 삼함이 되어 공했다는 것을 알고, 아는 그 마음도 공했다는 것을 알아 모든 것이 거기로 들고 남을 믿는 데 있다. 말하자면 누가 있어 여지껏 살아왔고, 누가 있길래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가를 아는 게 우선이다.

자기 소견에 있는 내용을 타파 못하면 과거심·현재심·미래심의 삼세심 내용을 타파 못한다. 삼세심의 내용을 타파 못하면 사공법을 모르고,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 원통 자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부 있고, 자기한테 스승 있고, 자기한테 부처 있고, 자기한테 법신 있고 한 것을 모르는 까닭이니 수박 씨를 밖에서 찾으려면 백년을 가도 천년을 가도 안된다.

활을 쓰려거든 자기한테로 똑바로 쏘아라. 지켜 보는 자와 행하는 자가 합일이 되면 견성이다.

협찬: 주인공